

NOW Worldwide

editor 이화정

LONDON



코린시아 호텔의 7가지 펜트하우스

런던을 대표하는 5스타 럭셔리 호텔 중 하나인 코린시아 호텔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재오픈했다. 최고급만을 지향하는 인테리어 중 압권은 로비 한가운데 돔을 장식한 샹들리에 폴 문(Full Moon). 파리지영 디자이너 샤파크 가스미(Chafik Gasmi)가 디자인하고 프랑스의 최고급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랏(Baccarat)이 제작한 수작이다. 이번 리뉴얼의 핵심인 Royal, Musician, Writer, Explorer, Actor 등 서로 다른 7가지 빅토리아 양식 펜트하우스에는 각각의 스타일에 맞는 수공예 가구들과 유니크한 장식품들이 가득하다.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엘레강스한 야외 테라스까지 갖췄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을 듯! **writing** 정용은(런던 통신원)

Address Whitehall Place, London SW1A 2BD Tel (44)20-7930-8181



1 미술랭 스타를 받은 게리 홀리헤드(Garry Hollishead)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The Northall. 2 로비 한가운데 위치한 샹들리에 돔 장식 폴 문(Full Moon). 프랑스 최고급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랏(Baccarat)이 제작했다.

LONDON



©Sirene Carpetalogue - GideonHart

카펫에 그린 디자인 지도

파리 그래픽디자인계의 슈퍼 듀오 M/M Paris란 이름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면, 비옥과 마돈나의 앨범 아트워크나 발렌시아가, 요지 아모토, 캘빈 클라인을 비롯한 여러 패션쇼의 초청장과 포스터 등을 떠올려보자. M/M은 미카엘 암잘락(Michael Amzalag)과 마티아스 오귀스티냐크(Mathias Augustyniak)의 이니셜로, 현대미술가인 필립 파레노(Philippe Parreno)와 피에르 위그(Pierre Huyghe)와 함께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도 진행해오고 있다. 이들은 지금 지난 20년의 작업사를 네 개의 대형 카펫에 집약해 <카페톨로그(The Carpetalogue)>란 전시를 열고 있다. 스스로 'M/M의 두뇌 지도'라 부를 정도로 그들의 디자인들이 축약되어 있는 이 카펫들은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장인들이 수공으로 직조했으며 번호가 새겨진 한정판으로 판매된다. 전시는 12월 15일까지.

writing 정재훈(파리 통신원)

Address 41-42 Berners Street, London W1T 3NB Tel (44)20-3384-8785 Website www.libbysellers.com

